‘순천 선거구 분구’ 물 건너 가나

여야 선거구 획정 협의, 세종만 분구·경기 군포 합구 가능성
다음주 협상 마무리 방침…민주, 소병철 전략공천 카드 ‘고심’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의가 지지부지한 가운데 순천의 분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의를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27일 현재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 하는데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세종시의 분구와 경기도 군포 등 수도권에서 1곳을 통합하는데 어느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세종, 춘천, 순천 등 3곳을 분구하고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 3곳을 통합하는 방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통폐합 대상 지역구들이 자신들의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분구가 예상됐던 순천시는 현행 1개의 선거구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도 군포 등에서 1곳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천의 분구는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재외선거인명 작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 달 5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주 월요일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인구 상하한선에 따른 헌법 불일치 부분이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광주·전남 선거구는 현행 대로 18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의장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이 현행 지역구 유지에 만족하며 순천 분구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미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주인없는 지역구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인없는 지역구의 설움이 이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역 의원들과 민생당 의원들이 순천의 분구를 위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의 분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소병철 전략공천 카드도 상당한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당은 순천이 분구된다는 전제로 전략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전략공천 지역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소병철 카드의 방향 전환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수도권 지역구 차출을 소 전 고검장이 받아들일 것인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순천 전략공천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서갑원 전 의원과 노관규 전 시장 등 예비후보들이 1년 전부터 바닥을 갈아왔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선 원칙의 당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또 소병철 전 고검장의 비례대표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미 27일 공모가 마감된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꼭 투표합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육교에 선거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사태’ 대처 세대결

대통령 탄핵 청원, 3주만에 100만…응원, 하루만에 50만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고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25일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7일 낮 현재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넘겼다. 청원이 올라온 후 20만명의 동의를 받기까지 20일이 넘게 걸렸는데, 이로부터 채 이틀이 안 돼 80만명가량 동의를 받은 것이다.

반면, 전날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는 이날 낮 현재 5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자가 글을 올린 당일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청원은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빠르게 늘자 이에 대응하려는 ‘맞불’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만 하루 만에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183만1900명의 동의를 받아 최다 인원 참여로 기록된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을 2위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상반된 내용의 청원에 참여 인원이 폭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극단적으로 세를 과시하려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함평군수 보선, 민주 경선 3파전

김성찬·이상익·정문호, 다음달 경선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함평군수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3인 경선’으로 결정됐다.

민주당공심위는 27일 함평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김성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상익 전남도당 부위원장, 정문호 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들 3명에 대해 3월중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후보에 맞서 김성호 전 전남도의원이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표밭을 갈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에는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신경선 전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정두숙 전 KBS프로듀서가 나섰다. 이밖에도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임용수 전남도의원도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등록한 무소속 출마자만 3명이고 임용수 도의원까지 포함하면 4명의 예비후보자가 무소속 출마로 거론되고 있어 혼전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맞서 무소속 연대론도 흘려나오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 임용수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사퇴시기인 선거일 30일전에 도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이번 4·15 선거는 군수와 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함평군선관위 관계자는 “광역(도)의원이 군수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전인 3월16일까지 의원직 사퇴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현직 기초의원이 군수에 출마할 경우에는 현직을 유지한 채 군수선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총선 라운지

이병훈, 버스승강장·시장 등 다중시설 방역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27일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산업부문에서 국내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버스승강장, 공원, 시장 등 다중이용 장소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해서든 코로나19가 더 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으로서, 모든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대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구 내 19개 동별로 다중이용시설과, 필수 방문시설, 일반 생활시설, 오폐수 관로 등 취약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권은희 “기득권과 싸울 것” 국민의당 입당 선언

권은희 (광산을)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양당 기득권처럼 지지층만 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그래왔듯이 중도 실용정치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3선 도전의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갑원 “교육청, 온라인 가정학습 방식 전환해야”

순천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남 및 순천 교육청은 신속하게 온라인 가정학습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올해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된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및 지원비용 2억490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학생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부족한 가정학습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신속히 신청하고, 교육콘텐츠의 부족 문제는 기존 영상플랫폼의 교육콘텐츠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긴급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김병원 “마한사 복원…나주에 역사문화도시 조성”

나주·화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원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마한사를 체계적으로 복원, 나주를 호남 최고의 역사문화도시로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존의 고대사에서 신라문화권과 가야사는 정립된 상태지만, 백제문화권과는 구분되는 마한문화권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발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마한 연구와 복원작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산강 유역에는 마한이 남긴 고분 480여 기가 산재한다”며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17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국보 295호 금동관으로, 이는 백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작됐음을 증명한다”고 소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 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 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
(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애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θ 451 ·광 산 944-0444